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

소프라노 조수미, '전석매진' 신화

26일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세계정상의 프리마돈나를 만나볼 절호의 기회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30주년 기념콘서트 라 프리마돈나' 군산 공연이 오는 26일...

제프코헨(JEFF COHEN)의 선율로 꾸며진다. 조수미는 이번 무대를 위해 오페라 <호프만의 노래> 중 '인형의 노래'와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 중 '발새도록 춤을 출 수 있다면'...

이 콘서트는 군산시와 OCI(주)의 후원으로 조수미가 세계무대에 데뷔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삶에 녹아 든 음악 철학과 음악적 행보를 보여 줄 계획이다. 조수미는 1986년 10월 만23세 나이에 이탈리아 5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트리스테 베르디 극장에서 리콜레토의 '질다' 역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했으며...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고품격 공연을 제공하고 OCI(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공연이 전석 매진이라는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되었다"며 "오는 10월에도 기업예세나를 통해 대형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를 선보일 예정으로, 앞으로도 기업후원을 통한 대형 공연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세계 5대 오페라극장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동양인 최초 국제 6개 콩쿠르 석권, 동양인 최초 황금기러기상(최고의 소프라노), 동양인 최초 그래미상(클래식 부문) 등을 받았다.

이번 독창회는 4년만에 선택한 피아노 콘서트로 조수미의 목소리와 피아니스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30주년 기념콘서트 포스터.

대중과 미술 간극 좁히다 전북 나우아트 페스티벌 25일부터 한옥마을 일대서

전북미술계의 작품을 기탄없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미술 축제가 열린다.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 집행위원회가 주관하고 (사)한국미술협회 전라북도지회가 주최하는 2016 JAF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전북예술회관, 교동아트미술관·스튜디오, 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진다.

'아트 앤 휴먼스토리 전북미술시장 UP'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기성작가부터 신진 작가의 작품까지 다양하게 전시함으로써 미술관람에 대한 대중의 친밀감을 높임과 동시에 도내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됐다.

JAF Flash 27인은 축제의 메인 전시로 나우페스티벌에서 주목할 만한 작가작품이, 네트워크 부스전에서는 타 지역 아트페어와의 교류가 이뤄져 각각색의 작품을 엮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획전으로 열리는 JAF Youth 9(젊음)에는 전북의 젊은 아티스트 9인이 참여해 참신한 미술세계를 선보인다. 공예이야기전에는 공예를 중심으로 한 작품 판매전을 진행하며, 순환버스리사이클링 이벤트 아트에는 재활용 소재로 만든 작품을, 반반 할인전에는 할인판매 가능한 미술작품을 전시한다.

또한 특별전에서는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다 작고한 지역 작가들과 작품을 재조명 하여 전북미술사의 발자취를 가늠해 보고자 했다.

이외에도 JAF 작가클로즈업에서는 전북미술에 대한 담론이, 지정토론회에서는 지역미술시장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리며, Art Box 및 JAF 미술놀이터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미술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나우아트페스티벌의 개막식은 오는 26일 오후 5시 전북예술회관에서 행위예술가의 퍼포먼스 공연으로 장식된다. 문의 063-276-9475.

/정해은 기자

'날 보러 와요' 김광림 "40년 극작 인생 들려드릴게요"

"극장에서 특별한 건 인물 간 충돌에서 나온다. 축구 경기와 흡사하다. 결국 누가 이길지 궁금해하지 않나. 연극을 끌고 나가는 에너지 구조 역시 마찬가지다. 결과가 궁금하도록 충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연극계 대표적인 극작가 겸 연출가 김광림(64·한예중 연극원 교수·서울문화재단 이사장·사진)이 극작 마스터 클래스를 연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남산예술센터가 23~25일 신진 극작가와 극작가 지망생들을 위해 여는 '2016 극작 강의 & 마스터 클래스' 마지막 날 2시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받는다. 40년 가까운 극작 인생에서 쌓은 경험담과 노하우를 들려준다.

최근 대학로에서 만난 김 교수는 "연극과 극작에 대한 내 기본적인 생각들을 편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큰 걸 얻어야겠다는 생각보다 편하게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웃었다.

김 교수는 한예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잘 쓰는 사람보다 버티는 사람이 작가가 된다'고 말했다. "극작이 다른 (글 쓰는) 장르와는 다른 건 기술이다. 물론 사상, 예술성, 문학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기술은 천재가 아닌 이상 한 번에 습득하기 힘들다. 오래 해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1970년대 창작극을 중심으로 의식 있는 연극 운동을 펼쳤던 대표적인 단체(서울대 연극반)와 극단(연우무대)을 두루 거친



김 교수는 이번 마스터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예전 글 쓸 때는 물어보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내가 연극을 시작했을 때는 차범석·이근삼·오태석·이강백 선생님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창작극이 거의 없던 때다. 번역극 일색이라 노랑 가발 쓰고 외국 옷 입고 데빙 어조로 연극을 했다. 그 당시 우리말로 연극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야기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지, 그래서 주변 이야기를 하게 됐고"

도시 빈민을 다룬 그의 데뷔작 '아침에는 늘 혼자예요'(1978)가 대표작이다. 당

시 이런 창작극을 선보이는 것이 예술운동의 성격이었다고 김 교수는 자평했다. "연우무대는 한국 현대 예술사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체"라는 것이다.

이후 스스로 부족함을 느낀 김 작가는 뉴욕행 비행기를 탔다. UCLA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그는 서울예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극작에서 기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후 한예중으로 옮기고 극작 커리큘럼을 짜면서 자신도 배워나갔다.

"정작 나는 내가 가르치는 극작술대로 쓰고 있지 않더라. 나는 이전에 글 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영어로 된 책을 읽고 거기에 따라 쓰는 것이 전부

였지. 그래서 '나도 내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1996년 '날 보러 와요'다. 미해결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이 연극은 꼼꼼한 취재와 치밀한 구성으로 극작의 정점으로 통한다. 진실 찾기가 핵심 주제로 국가 시스템의 문제 등의 결까지도 잘 짠이 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2003)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후 양식적 실험에 관심을 기울였다. 한예중 제자들과 함께 만든 극단 우투리가 대표적이다. 정통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양식화하는 작업은 한 극단인데 프랑스 등 유럽에서 호평을 받았다. 현재 공연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예술인들도 배출했다. 퓨전 국악 그룹 '고래야, 해금연주자 꽃별, 연출가 변정주 등이 이 극단 출신이다.

지난해 국립극단과 손잡고 선보인 '슬픈 인연'은 김 교수의 이야기꾼 면모를 다시 확인시켜준 작품이다.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자신을 남겨놓고 도주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로 인한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남자의 이야기였다. 배우들이 실제 연주한 곡의 앙상블이 상처를 보여줬다.

"개인에게 아픔을 준 사회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 화해하려면 우선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투적이지 않, 온건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하고 싶었다." /뉴스

전주역사박물관, 시민강좌 수강생 모집

전주역사박물관은 <전북의 정체성과 전주>의 시민강좌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해는 1896년 13제도의 시행으로 전라도가 전라북도라 전라남도라 분리된 지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에 전주역사박물관은 전라북도의 정체성과 역사를 생각해 보고 전주시민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강좌를 마련했다. 이번 강좌는 오는 9월 3일~10월 29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열린다.

강의는 1강 전북의 정치행정과 전주(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를 시작으로 2강은 전북의 경제활동과 전주(소순열 전북대학교 교수), 3강은 전북의 사회구조와 전주(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 4강은 전북 120년 관련 유적지 탐사(홍성덕 전주대학교 교수), 5강은 전북의 행정구역과 전주(강용기 서남대학교 교수), 6강은 전북의 문화창달과 전주(문순걸 예원대학교 교수), 7강은 전북의 예술진흥과 전주(곽병창 우석대학교 교수), 8강은 전북출신 인물과 전주(조상진 前전북일보 논설위원)로 총 8주에 걸쳐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100명이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22~26 전주전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www.jonju.ac.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 228-6485~6. /정해은 기자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8월 22일>

▷쥐띠 46년생: 태양이 붉게 떠오르는 상. 60년생: 건강적으로는 좋지 않으나 일적으로는 좋은 운. 72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는 운. 84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소띠 49년생: 문서에 길성이 들어왔다. 61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일이 성사된다. 73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나 운은 지나가는 것이다. 준비된 자는 잡을 수 있을 것이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실이 생긴다.

▷호랑이띠 50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정신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운. 74년생: 손아랫사람에게 배플면 덕이 돌아오는 운. 86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기지만 서로에게 좋은 자국이 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토끼띠 51년생: 정신적으로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 63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는 시기이나 편법을 사용하여 취득하면 후에 문제가 발생하니 주의하라. 75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다. 87년생: 손재주와 실물수가 따르니 조심하라.

▷용띠 5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근심 이 해결될 것이다. 76년생: 오늘의 적이 곧 내일의 친구가 된다. 88년생: 뒷사람의 모진 말속에 도움 되는 답이 있다.

▷뱀띠 53년생: 외부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지름길이니 주의하라. 65년생: 외출을 하면 손재주가 따른다. 77년생: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한 운이다. 89년생: 머리가 맑아지는 운.

▷말띠 54년생: 함께 있는 시간이 길수록 불리하다. 66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이 생기는 운. 78년생: 식욕이 따르는 운이나 과식은 금물이다. 90년생: 여성은 남성과의 다툼이 따르는 운.

▷양띠 55년생: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시비가 따르니 주의하라. 67년생: 먼저 베풀면 후에 이득이 따르는 운. 79년생: 문서를 주고받거나 학업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좋은 운. 91년생: 동성보다 이상의 조언을 구하라.

▷원숭이띠 56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68년생: 문서를 잡고자 하거나 계약할 할 때도 좋은 운. 80년생: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92년생: 현재 상황을 과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라.

▷닭띠 57년생: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69년생: 소홀했던 사람을 찾으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81년생: 이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구설이 생기거나 화가 생긴다. 93년생: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부르는 운.

▷개띠 46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다. 58년생: 인덕은 버리지 말아야 하는 운. 70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원해도 되도록 살기는 것이 좋겠다. 82년생: 상황이 변하여 놀리거나 힘든 일이 생기니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돼지띠 47년생: 뜻이 맞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운. 59년생: 계약하거나 좋은 문서를 얻을 수 있는 운. 71년생: 뜻하지 않게 이상으로 인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 주의하라. 83년생: 작은 욕심은 이루어지나 큰 욕심은 화를 부르는 주의하라.